



남한, 북한, 러시아 3 국간의 경제 협력 전망*

알렉산더 티모닌

러시아 대사관 경제참사관, Ph.D.

러시아의 빅토르 스테파노비치 체르노미르딘(V. S. Chernomyrdin) 총리는 1994년 9월에 한국을 공식 방문했을 때 구소련이 과거에 북한에 건설했던 산업 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러시아, 남한, 북한 3 국간의 경제 협력 구상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구상은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남한의 정부 기관 및 민간 기업들이 북한과의 경제 교류에 관한 장기 전략을 모색하는 가운데 발표되어, 남한에서는 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야기되었다.

따라서 남한의 많은 학자, 언론인, 기업인들이 러시아가 이 문제에 관하여 북한측과 어떤 사전적 논의가 있었는지 문의하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체르노미르딘 총리는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구상은 아직은 일반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며 이에 관하여

북한측과 상의한 바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이 구상이 우연히 제시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남북한간 경제 교류의 증대, 러시아 및 남북한 3 국 사이의 경제적인 상호 보완성 등의 요인에 의하여, 3 국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상호 협력을 통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한에 대하여 계속 비방하고 있기는 하나, 북한 당국자들은 최근 수해와 홍작으로 인하여 더욱 심각하게 악화된 그들의 경제 위기에 대하여 대단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북한 당국자들은 북한 정권의 존재를 위협하는 현재의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탈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마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최근 몇년동안 계속 노후화되고 있는 북한의 산업 부문을 재생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외국 자본을 (초기에는 제한된 규모로) 유지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일부 외국 전문가들은 인접 국가(한국, 러

* 이 논문은 북한에 대한 연구에 장기간 종사해왔던 알렉산더 티모닌氏의 사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다.

시아)와의 광범위한 경제적 협력에 의해서만 북한의 경제는 생존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북한의 당국자들이 점차적으로 이를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남한의 기업들이 북한 시장을 조사하고 북한과 경제 교류를 증대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심은 남한의 많은 기업 대표들이 공식적인 발언을 통하여 향후 대북 경험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발표하는 데서 확인되고 있고, 일부 남한 기업 대표들의 평양 방문 보도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남한 민간 기업들의 대북 경험을 조정하기 위하여 1995년 초에 남한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산하 기구로, 고려합섬그룹의 장치혁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남북경협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남한의 언론 보도와 남한 기업인들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그들의 초기 대북 접촉은 예상과 달리 그다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없고, 북한 산업의 현황, 사회간접시설, 그리고 노동력의 기술 수준, 노동 인구 수준 등 북한의 노동력 현황 등 북한 경제의 구체적인 현황에 대한 그들의 전망도 확대되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남한의 많은 기업인들은 남북한 당국자 사이에 정치적 대화 재개의 불확실

성, 그리고 경험을 위한 제도적 법적 장치의 미비 등에 의하여 대북 경제 협력에 대하여 계속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과의 향후(양자간 혹은 다자간) 경제 협력의 전망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구소련 및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의 경험은 남한에게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러시아는 대북한 경험을 통하여 북한의 공업 구조, 북한 경제의 잠재성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의 45년 동안 구소련과 북한은 경제 면에서 가장 가까운 동반자였다. 구소련은 북한에게 무상으로 대규모의 재정 원조를 제공하여, 북한의 사회간접시설 및 중·경공업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게 하였고, 현재에도 북한 경제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70여개 이상의 기업을 설립하였다. 90년대 초기, 구소련에 의하여 건설된 공장 및 발전소들은 북한 전력 생산량의 약 65%, 철광석의 40%, 강철생산량의 30%, 압연철판의 30%, 알루미늄의 100%, 선철의 11%, 코크스의 25%, 식유화학제품의 50%, 화학 비료의 13%, 소형 전기모터와 자동차 축전지의 100%, 그리고 섬유제품의 2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 남한, 북한 3국간 경제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

소련이 북한에 설립한 주요 기업들의 목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 공장 및 설비 시설 중의 일부는 3 국가의 경제 협력 프로젝트의 가장 유망한 분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북한의 전력 산업을 건설하기 위하여 구소련은 북한에 대규모의 원조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50년대 수풍 수력발전소(발전 용량: 약 70만 kW)의 복구는 구소련의 원조에 의해 완성되었으며, 60년대 북한의 최초 화력발전소인 평양발전소(발전 용량: 50만 kW)도 구소련 전문가들에 의하여 건설되었다. 1985년에는 구소련의 원조에 의하여 북한 최대의 화력발전소인 북창발전소(발전 용량: 160만 kW)가 건설되었고, 1992년에 러시아는 북한 최대의 전력회사인 동평양 화력발전소(발전 용량: 20만 kW)와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하였다. 약 35%의 발전 설비가 동평양 발전소의 건설 현장에 전달되지 못하였다.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에 관해서는 모든 건설 업무가 중단되었고, 단지 타당성 조사만 실시되어 러시아 전문가들은 원전의 장소 선정에 관한 추천을 준비하였다. KEDO 프로젝트에 러시아의 참여 가능성은 러시아의 대북한 경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 및 다른 국가들에 의하여 현재 거론되고 있다.

가장 유망한 철금속 공업 분야의 기업으로

는 김책제철소, 청진제강소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 기업들은 북한 철강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70년대 및 80년대 구소련은 이들 공장에 산소 전환로공장, 열간 압연공장(연간 생산량: 240백만 톤), 냉간압연공장(연간 생산량: 240만 톤) 등의 추가적 설비 건설에 원조를 제공하였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들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을 600만 톤까지 증대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성이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구소련은 또한 연간 5만 톤의 강철과 12만 톤의 압연철판 생산 능력이 있는 성진제철소의 복구 및 재건에 참여하였다.

비철금속 산업 분야에서 구소련에 의하여 재건된 기업들 중에는 남포 비철금속공장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구소련의 원조 하에서 구리 용해공장, 동(銅) 및 아연 전해(電解)공장이 건설되었고, 1983년에는 구소련의 원조로 동(銅)환원공장(연간 생산 능력: 2.3만 톤)이 건립되었다. 80년대에 구소련은 북창에 대규모의 알루미늄 생산 공장의 건립에 착수하였으나 90년대 초에 러시아 정부에 의하여 중단되었다. 비철금속 부문은 북한의 공업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 중의 하나이며, 북한 당국도 이 분야의 현대화와 개발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하다.

화학공업은 북한에서 가장 발달된 분야의 하나로서 이 분야에서도 다자간 경제 협력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소련은 북한 최대의 홍남화학비료공장(연간 생산 능력: 110만 톤)의 재건에도 기술 원조를 제공하였다. 90년대 초반, 홍남비료공장은 10만 톤의 암모니아비료와 40만 톤의 질소비료를 포함하여 40여 종류의 비료를 생산하고 있다.

구소련은 본궁(本宮)에 연산공장(연생산량: 1만 톤)을 건설하였고, 연산 5만 톤 규모의 암모니아 화학공장을 아오시에 건설하였다. 구소련은 또한 북한의 석유화학공업의 기반 조성에 일조하였다. 70년대 초반에 웅기 정유공장(연간 원유 200만 톤 정유 능력 보유)이 건설되었으며 이 공장은 석유, 등유, 디젤 연료 및 중유를 생산할 수 있다.

이밖에 향후 3 국가간의 경제 협력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는 북한의 건재 산업을 들 수 있다. 구소련은 마동 시멘트 공장(연간 생산 규모: 40만 톤)과 천내리 시멘트 공장의 슬레이트 공장 등 2 개의 대규모 시멘트 공장을 북한에 건설하였다.

70년대 후반기에 구소련과 북한은 구상 무역 방식의 경제 협력을 시작했다. 즉, 구소련 정부는 기계 산업의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북한에 제공하였으며, 북한은 나중에 이들 공장의 생산물을 구소련에 되돌려 주는 형식

을 취한 것이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구소련 전문가들은 평양에 에나멜 선(enameled wires) 공장(연간 생산 능력: 550 톤), 대동상 자동차용 축전기공장(연간 생산 능력: 110만 톤), 소형전기모터공장(연간 생산 능력: 100만 개), 그리고 평양 근처에 베어링공장(연간 생산 능력: 1,000만 개) 등을 건설하였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들 공장 모두가 선심성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소형전기모터공장의 경우는 세척기나 가정용 냉장고에 사용할 수 있는 엔진도 생산할 수 있으며, 에나멜 선은 전기 엔진의 생산에도 사용된다.

또한 북한측은 6 년전 러시아의 Nizhuy Novgorod와 북한의 희천에 합작으로 건설한 공장에서 현대적 금속 절단기의 생산을 확대하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속 절단기의 생산에 필요한 시설은 러시아 전문가들에 의해 제공된 것이다. 1993년 양측 공장은 모두 2,500 개의 절단기를 생산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희천의 모든 생산 라인이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다. 일부 전문가의 추정에 의하면, 이 합작 공장에 대해 신규 투자를 한다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이들 금속 절단기의 생산량을 6,000~7,500 개까지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 경제의 가장 긴급한 문제 중의 하나는 운송 관련 인프라의 확장 및 현대화이다. 먼저, 북한의 철도는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 전체 화물의 90% 이상이 철도로 운송되고 있으며, 또한 승객 운송의 70% 가량이 철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 철도의 총길이는 6,000 km에 불과하다. 구소련은 이들 철도의 현대화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작업을 중단했다. 당시 구소련에 의해 건설된 시설 중에는 두만강 철교, 디젤기관차 수리 공장, 평양의 사동화된 기차역 등이 있다.

북한 내에서의 다자간 협력의 중요한 한 가지 영역으로서, 구소련 전문가의 지원 하에 설치된 라디오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체제들 들 수 있다. 60년대와 70년대, 구소련은 평양 라디오 센터를 건설하였으며, 또한 중파(middle-wave) 방송국과 평양에서 구소련 국경까지 연결되는 통신망을 설치하였다.

또 한 가지 특별한 관심을 가질 분야는 북한 섬유 산업의 현대화와 개발을 위한 협력 가능성이다. 이 분야에서의 구소련의 역할은 매우 지대한 것이었다. 구소련의 기술적 지원은 북한 내 최대 섬유 공장인 평양 섬유산업 공단을 비롯하여, 평양 실크생산공장(연간 생산량: 1,000만 미터)과 평양 염색공장(연간 생산량: 4,500만 미터) 등의 건설에 있어서

구소련의 기술적 지원이 제공되었다. 필자의 견해로는 북한 내 섬유공장의 현대화야말로 러시아 및 남북한 3자간 경제 협력에 있어서 일종의 '파이럿 프로젝트'(pilot project)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구소련과의 협력을 유지해왔던 상당한 수의 북한 섬유 공장들은 이러한 사업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현재 북한의 평양, 청진, 함흥, 원산, 신의주 등에는 약 25 개의 봉제 및 편물 공장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경쟁력있는 고품질의 섬유 제품을 생산할 능력을 갖춘 숙련공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용 인력에 따라, 이들 공장의 연간 생산량은 300만 개에서 5,000만 개로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인 재봉틀은 구소련,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헝가리 등에서 생산되며, 특수 재봉틀은 일본에서 생산된다. 평양에는 일본제 특수 기계를 완전히 갖춘 공장도 2 개가 있다. 이들 모두 고객으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생산하여 다시 고객에게 판매하는 소위 '임가공' 형태의 경제 협력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들은 과거에 러시아, 일본, 독일, 캐나다, 홍콩, 네덜란드 등과 임가공 무역을 했던 경험도 있다. 이들 공장의 직원 수는 800~2500 명에 달한다.

러시아 전문가의 추정에 의하면, 경제 협력

의 첫 해 동안에 이들 공장들이 약 350만 개의 남성용 및 아동용 셔츠, 150~200만 개의 남성용 및 아동용 바지, 50~100만 개의 남성용 및 여성용 자켓, 350~400만 개의 양복, 양장, 파자마, 나이트 가운, 여성용 블라우스, 코르셋 용품, 그리고 100~150만 개의 모자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내 섬유 산업 시설을 이용한 3자간 경제 협력의 파이럿 프로젝트는 다른 방식으로 수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의 생각에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러시아 및 남북한의 관심있는 기업들로 구성된 3자간 컨소시엄을 설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 측에서는 북한과 몇년에 걸쳐 섬유 산업 협력을 해왔던 Delaros라는 회사가 이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측의 가능한 파트너로서는 이쪽 분야에서 오랜 기간 일해왔던 '은하'라는 국영 대외무역회사를 들 수 있다. 남한의 경우는 고합이나 대우 그룹이 가능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두 기업의 경우는 1995년 초에 평양을 방문하였으며, 방문 직후 大宇는 남포에 경공업 단지(약 9 개의 공장)를 건설할 것이며, 또한 이중 3 개의 공장에 곧 새로운 기계를 공급할 뜻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1995년 5월 17일, 남한 정부는 고합과 대우에게 북한 내에서의 합작 회사 설

립, 500만 달러 한도 내에서의 직접 투자, 생산 시설 반출 등을 공식적으로 허가하였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 직후, 대우는 남포 내 섬유 공장의 현대화를 위해 512만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뒤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중 287만 달러는 남성용 셔츠 생산에, 115만 달러는 자켓 생산에, 그리고 114만 달러는 가방 생산에 투자될 예정이다. 또한 高수도 북한 내 섬유 산업에 45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 그후 1995년 6월, 남한 정부는 한일합선과 국제에게 북한의 의류 및 신발 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다.

러시아, 남한, 북한 3자 모두가 북한 내 섬유 산업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이 구상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장애물은 남북한간 정치적 혹은 경제적 접촉 및 교환 채널의 부재이다. 가까운 장래에 한반도 내에서의 다자간 경제 협력을 실현하는 데에 남북한간의 대화 상황, 그리고 북한 내의 상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다. 불행하게도 1995년에는 남북한 관계의 뚜렷한 개선은 발생하지 않았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남한 측은 북한과의 경제 교류를 발전시키고 확대할 의사가 있음을 몇번이나

보여주었다는 사실이다. 북한 당국은 남한의 대기업 대표와 북한의 국영 대외무역기구간의 접촉과 협상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거나, 가끔은 적극적으로 조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접촉 사실을 일반 주민들에게는 계속 숨겨왔다.

최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 경수로 공급 협정의 타결로 인해, 북한 내 다자간 경제 협력을 위한 보다 유리한 조건들이 형성되었다. 이번 합의가 경수로 공급 사업에 있어서 남한의 중심적 역할을 재확인했다는 사실은 향후 남북한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이 남한과의 자유로운 경제 교류를 허용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너무 이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의 남북한 관계를 반영하는 잠정적 조치로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북한 산업에 대한 3자간 협력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내 공장들에 대한 모든 재건 및 현대화 사업들은 북한 산업의 구체적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러시아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된다. 남한도 러시아 측을 통해 소요 자금을 차관해 주거나 필요 장비 및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초기 단계에 참여할 수 있다.

차관 및 장비에 대한 상황은 북한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의 인도로서 대신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러시아 회사(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Delaros 회사)의 중개를 통해 이루어진다. Delaros 회사는 북한에서 생산된 물품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운반하는 데 필요한 수송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회사는 또 블라디보스토크에 창고를 가지고 있어서, 이 곳에서 물품을 검사하고 컨테이너에 실어 철도나 배를 통해 목적지로 운반할 수 있다. 블라디보스토크와 북한과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점, 러시아와 북한간의 매우 발달된 철도 및 해운 수단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형태의 3자간 경제 협력은 상당히 전망이 밝다. 이러한 계획은 아직도 남한 공식 대표와의 직접 접촉을 꺼리고 있는 북한 당국의 입장과도 들어 맞는 것이다.

러시아를 매개로 한 남북한간의 경제 협력은 장차 남북한 기업인들간의 직접적인 접촉의 확대나 남북한 정부간 상호 불신의 해소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

경협군로작양

조경희 작
이재우 작

